

축산업계

소식

축산분뇨 유기질 비료공장 설치가능

건설부는 축산농가의 규모확대와 밀집으로 축분유기질비료공장의 설치가 시급히 요망됨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가 불가능하여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던 축분유기질비료공장 설치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협조요청에 대하여 환경보전 및 낙후지역의 소득증대차원에서 이 시설설치를 허용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우선 축분비료공장의 설치가 시급한 포천, 이천 등 개발유보권역, 자연유보권역, 자연보전권역의 대단위 축산단지에서 설치코자하는 공장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지역특화업종공장으로 인정·허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발유보권역, 자연보전권역 및 개발유도권역에서 이 시설을 자연성업종에 포함시켜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시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위생법 개정령 공포

—부위명, 등급명, 용도, 1백g당가격 표시토록—

보사부는 지난 12월28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을 공포하였다.

이에 따르면 식육판매업자들은 앞으로 식육을 진열상자에 넣고 식육의 부위명, 등급명, 용도, 1백g당 가격 등이 표시된 표시판을 부위육 전면에 게시, 판매토록하고, 이를 어길 경우 영업정지 등 각종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또한 도축부산물인 다리, 간, 내장 등을 판매하는 부산물 전문판매업자는 판매장에 세척시설, 보관시설, 진열상자와 저울을 설치토록 했으며, 조제분유의 신문·텔레비전 등을 통한 광고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 개정령은 또 식육부산물 판매업자는 식육부산물을 종류별로 진열, 보관하고 섭취 10℃ 이하의 전기냉장 또는 영하 18℃ 이하의 전기냉동이 가능한 보관시설을 갖추게 했으며 진열상자는 내부에 온도계를 비치하여 10℃ 이하의 온도를 유지하고, 진열된 식육부산물을 소비자가 보기쉽게 하도록 했다.

또한 식육부산물 세척시는 수돗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돗물이 아닌 경우는 공공시험기관에서 1년마다 음용 적부시험을 받도록 했으며 식육부산물의 취급에 필요한 모든기구는 스테인레스나 알루미늄 등 내수성의 위생적인 재질을 사용토록 했다.

수입축산물 및 가공품

16개품목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으로 고시

작년 7월부터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을 시행하고 있는 상공부는 금년 4월

부터 수입축산물 및 가공품 16개품목을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으로 고시했다.

이에따르면 △육과 식용설육 △밀크와 크림 (농축, 비농축) △버터밀크·응고유와 응고크림 △유장 △치즈와 키드 △조란 △천연꿀 △돼지육 조제식품 △소의 뼈 △소세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소의 육 조제식품 △유당 △인조꿀 △조제분유 △버터 및 기타의 지와 유 등이다.

축산물위생검사, 농림수산부가 처리

그동안 농림수산부와 보사부로 중복되어, 예산, 인력, 등의 행정낭비는 물론 민원인의 불편 등 불합리한 점이 많았던 축산물위생검사를 농림수산부가 맡아 처리하게 되었다.

이에따라 앞으로 축산물에 대한 신고의 수리 및 검사에 관한 업무를 농림수산부(국립동물검역소)에서 계속 담당하기로 했으며 특히 축산물검사기준은 수육 중 잔유물질 시험방법 및 허용기준을 폐지하고 보사부가 정한 식품위생법규정에 의한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을 다음과 같이 적용, 운용하게 된다.

■ 항생물질등의 잔류 허용기준

식품은 항생물질, 합성항균제 및 홀몬제를 함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식육 중 그 잔류 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항생물질 (단위:mg/kg)

구 분	쇠 고 기	돼지고기	닭 고 기
네오마이신(Neomycin)	0.25이하	-	-
노보비오신(Novobiocin)	1.0이하	-	1.0이하
모넨신(Monensin)	0.05이하	-	0.05이하
바시트라신(Bacitracin)	0.5이하	0.5이하	0.5이하
버지니아마이신(Virginiamycin)	-	0.1이하	0.1이하
살리노마이신(Salinomycin)	불검출	불검출	-
스트렙토마이신(Streptomycin)	-	불검출	불검출

스피라마이신(Spiramycin)	0.025이하	0.025이하	0.025이하
암피실린(Ampicillin)	0.01이하	0.01이하	-
에리스로마이신(Erythromycin)	불검출	0.1이하	0.125이하
옥시테트라사이클린(Oxytetracycline)	0.1이하	0.1이하	1.0이하
올레안도마이신(Oleandomycin)	-	0.15이하	0.15이하
클로람페니콜(Chloramphenico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클로르테트라사이클린(Chlortetracycline)	0.1이하	0.1이하	1.0이하
티로신(Tylosin)	0.2이하	0.2이하	0.2이하
페니실린(Penicillin)	0.05이하	불검출	불검출
하이그로마이신B(Hygroscopicin B)	-	불검출	불검출

합성항균제

(단위:mg/kg)

구 분	쇠 고 기	돼지고기	닭 고 기
나이카바진(Nicarbazin)	-	-	4이하
니트로빈(Nitrobin Panazon)	0.1이하	0.1이하	0.1이하
데코퀴네이트(Decoquinat)	2.0이하	-	2.0이하
설파디메톡신(Sulfadimethoxine)	0.1이하	0.1이하	0.1이하
설파메라진(Sulfamerazine)	0.1이하	0.1이하	0.1이하
설파메타진(Sulfamethazine)	0.1이하	0.1이하	0.1이하
설파모노메톡신(Sulfamonomethoxine)	0.1이하	0.1이하	0.1이하
설파퀴놀살린(Sulfaquinoxaline)	0.1이하	0.1이하	0.1이하
암루롤리움(Amprolium)	0.5이하	-	0.5이하
에토파베이트(Ethopabate)	-	-	0.5이하
올라퀸독스(Olaquinox)	0.05이하	0.05이하	-
옥소린산(Oxolinic acid)	0.05이하	0.05이하	-
오르메토프림(Ormethoprim)	-	-	0.1이하
조렌(Zoalene)	-	-	3이하
치암페니콜(Thiamphenicol)	0.5이하	0.5이하	0.5이하
카바독스(Carbadox)	-	불검출	-
클로피돌(Clpidol)	0.2이하	0.2이하	5이하
푸라졸리돈(Furazolidone)	-	불검출	-

■ 이물

식품은 원료의 처리과정에서 그 이상 제거되지 아니하는 정도 이상의 이물과 비위생적인

이물을 함유하여서는 아니된다.

여기서 이물이라 함은 동물성 이물로서 절족 동물 및 그 알, 유충, 그 배설물, 설치류 및 곤충의 기식 흔적물, 동물의 털, 그 배설물 기생충 및 그 알 등과 식물성 이물로서 종류가 다른 식물 및 그 종자, 곰팡이, 짚겨 등과 광물성 이물로서 토사, 유리, 금속, 도자기 파편 등으로서 정상식품의 성분이 아닌 물질을 말한다.

식품중에 이물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은 그 식품의 원료, 제조, 가공 또는 취급이 불량하거나 비위생적으로 처리된 경우가 많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원료의 종류나 상태에 따라서는 종류가 다른 식물, 원료 식물의 표피 또는 토사 등과 같이 실제에 있어 정상적인 제조가공상 완전히 제거되지 아니하고 잔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이물로서 그 양이 적고 일반적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는 정도는 제외한다.

배합사료 가격 인상조짐

—인건비, 수송비가 그 원인인 듯—

국내 배합사료업계는 국제사료곡물가격과 임금, 수송비 등의 상승으로 인하여 국내배합사료의 가격을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사료협회에 따르면 환차손에 따른 원료 가격의 상승은 옥수수, 수수, 소맥 등의 일부품목에 극한 되지 않고 전체 수입원료에 골고루 반영되고 있으며, 이상기온현상에 따른 수확량 감소로 가격강세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국산 원료가격도 상승하고 있다.

현재 가장 심각한 것은 수송비로 계약기간이 만료되기도 전에 50% 가까이 상승하였고 교통체증에 따른 소요시간의 증가와 과적차량 단속에 따른 수송물량의 감소로 인상폭은 훨씬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항만시설의 부족으로 하역수속 및 작업을 위해 항계밖에서 대기하는 배들이 늘어나면서 이에따른 부담도 커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같이 국내외적으로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지난해까지 비교적 안정세를 보여오던 배합사료업계에서 가격인상조짐을 보이고 있어 양축가들에 다소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축산물 수입 추천요령 공고 농림수산부

농림수산부를 비롯한 축협, 농협 등 농축산물관장기관들은 상공부의 수출입공고에 따라 개정된 농축산물수입추천요령을 지난 3일 각 기관별로 공고했다.

이날 공고된 추천요령에 따라 축협중앙회는 수급조절을 위해 소, 돼지고기, 양고기, 천연물 및 인조꿀 등을 축산물가공업자 및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수입을 추천키로 했다.

수입개방보완대책 특별위원회 개최 —9백85억원 지원키로—

농림수산부는 1월8일 조정식농림수산부장관 주재로 수입개방보완대책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농축수산물의 수입확대에 따른 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9백85억원을 지원키로 했으며, 수입농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을 크게 늘리고 수입물량의 사전신고제를 도입, 수입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하는것은 사전에 방지키로 했다.

한편 국내 농수산물수출실적은 지난해에 비해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입은 지난해 보다 약 10억8천4백만 달러가 늘어난

것으로 밝혀져 수입증가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가족노동력 중심의 전업농가 선정 지원

농림수산부는 가족노동력 중심의 전업농가(닭 2만~3만수, 한우 10두 내외, 젓소착유우 30~40두, 돼지 5백~1천두 규모)를 선정하여 오는 '95년까지 전체 사육두수의 50%이상을 이들 전업농가에서 사육토록 장기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올해에 우선 2백25명의 양축농가를 선정 축사시설자금 등을 종합 지원하는 동시에 철저한 경영지도를 통해 핵심양축가로 육성할 방침이며 지원금은 1억에서 2억5천만원까지 차등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축산단체 및 축산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하여 선발 및 경영지도를 실시하고 목표를 부여, 연4회 이상 합동진단 분석평가를 실시하며 동시에 축산경영진단사업을 활성화, '95년까지 30%이상의 생산비를 절감키로 하고 연1회 이상 세미나와 성공사례를 발표키로 했다.

식육판매업소에 시설개선자금 융자

농림수산부는 부위별 차등가격제의 조기 정착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영세한식육판매업소에 대한 시설개선자금으로 40억원을 책정, 지원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중인 부위별 차등가격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영세식육판매업소에 대한 시설개선자금을 지원 육류부위별로 진열, 판매함은 물론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한 필수시설인 육류판매시설(진열장)개선자금 40억원을 2천여업소에 융자해 줄 계획이다.

농축산물 종자 관세감면

농림수산부는 UR농산물 협상타결과 농수산물의 수입자유화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 축산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종마, 종양, 종축용 오리, 밍크, 여우 및 사료작물재배용 종자 등 농축산물 종자용에 대해 수입시 관세감면물품으로 지정해줄 것을 재무부에 요청, 1월15일부터 관세감면물품으로 지정받았다.

수입개방보완대책 특별위원회 발족

정부는 각국의 이해상충으로 타결되기 힘들 것으로 보이는 UR협상에 대하여 만약의 경우 미국과 유럽간의 극적타결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산물보조금 감축계획서 작성을 위한 특별대책반을 설치하여 품목별 이증가격제, 가격지정정책의 재점검, 예산 등 각종제도와 법령의 정비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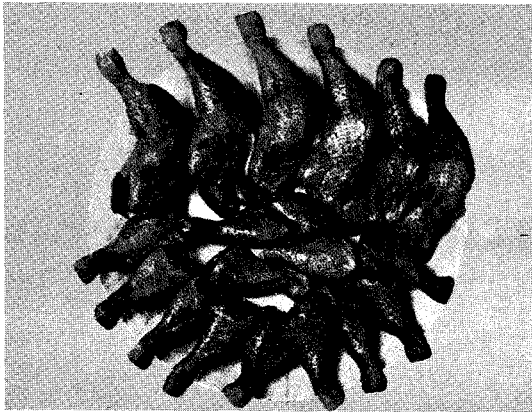
특히 농림수산부는 단켈사무총장의 협상초안을 골자로 UR이 타결될 경우 쌀도 수입개방품목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쌀개방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축산물 시범 판매 개장

축협중앙회(회장 명의식)은 지난 1월17일 본회 지하실에 200평규모에 축산물 시범 판매장을 개장했다.

이날 개장식에는 농림수산부장관(조경식)을 비롯해 업계 및 각계인사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인사말을 통해 수입개방에 대처해 나아가기 위해서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가공식품을 소비홍보 차원에서 축산물 시범 판매장을 개장했다.

이 판매장은 조합원이 생산한 가축을 산지에



부분육(다리부분)

서 구매·소비자 및 대량수요처를 대상으로 소·도매기능을 수행케 하며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축산물을 소비자들이 한눈에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전시 판매하고 있는데 양계산물을 비롯해 한우, 육우, 유가공, 육가공, 냉동식품 코너가 마련되어 있으며, 유명요리가를 초빙 축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요리법을 개발 보급하기 위해 요리교실도 마련되어 있고 멀티비전 상영도 소비자들에게 상당한 효과의 기능으로 좌우하리라고 전망된다.

- 소비자 상담안내
- 주소: 강동구 성내동 451번지
- 전화: (02)485-3141~2 교)2861~5

육계계열화사업 본격 추진

축협중앙회는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육계계열화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이를 위해 금년부터 '93년까지 총 80억원을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올해에는 1차적으로 44억원을 투입, 계열화사업 추진에 따른 기반조성에 착수하게 되는데 내년부터는 계열화사업을 통한 닭고기생산 체제를 갖추게 된다.

축협이 육계사육농가의 소득보장과 생산비

절감, 닭고기 수급조절을 위해 마련한 계열화사업 기본계획에 의하면 계열농가는 출하조절 등 계열주체의 가격안정대책에 협조의무만 지면서 사육만 전담토록 되어있다.

가축배설물처리기술 및 이용방법 책자 발간

축협중앙회는 가축배설물에 대한 환경문제가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가축배설물처리를 돕기 위한 해설책자를 발간했다.

「가축배설물처리기술 및 이용방법」이란 이 책자는 총5백17페이지에 걸쳐 가축배설물의 비료화방법을 비롯해 발효·건조처리와 악취 제거·기계장비에 대한 설명을 담고있다. 축협은 이를 일선조합등 계통조직에 무료로 배포, 대양축가지도에 활용키로 했다.

계통사료 공장간의 전산시스템 구축

—가격인하효과 기대—

축협중앙회는 축협의 배합사료공장 첨단화계획에 따라 1단계 조치로 배합비 온라인망을 완료하여 계통사료공장간의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배합비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총4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완료한 이 시스템은 축협사료공장의 생산성과 사료품질의 향상을 통한 가격인하 효과가 기대되고 있으며 또한 제2단계로 일반업무 처리용 전산시스템과 프로그램개발 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축협배합사료공장의 경영과학화를 도모해갈 방침이다.

농림기술사·기사검정시험 실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은 농림기술사, 기사 등 농림부문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계획일정을 공고했다.

기존의 산업응용분야에서 분리돼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시험은 기술사1회, 기사6회에 걸쳐 치른다고 발표하고 자격종목은 종묘, 영림, 축산, 임산가공, 식품, 농화학 등이며 농림기사의 자격종목과 등급은 △제7회 축산1·2급, 식품제조2급 △제2회 원예종묘 1·2급, 식품제조 2급 △제3회 식품제조 1급 △제4회 축산 1·2급 △제5회 원예종묘 1·2급, 식물보호 1·2급, 임산가공 1·2급, 식품제조 1·2급, 농화학 1급 △제6회 영림 1·2급 등이다.

원서교부는 각 시험일정에 따라 공단 각 지방사무소에서 배부한다.

축산농가 체험수기 모집 상금 2백만원 고료

축협중앙회는 축산 진흥지 창간 14주년을 맞아 2백만원 고료 축산농가 체험 수기를 모집한다. 원고내용으로는 수입개방 및 어려운 축산현실에 대응하여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축산경영으로 새로운 축산환경 변화에 적응해 나가는 양축현장의 체험수기로 ▲축사시설의 기계화를 통한 생력화 등 노동력 절감 ▲사양 및 경영합리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가축배설물의 효율적 처리방안 ▲유통합리화에 의한 소득 증대 ▲양축농가의 고난극복 사례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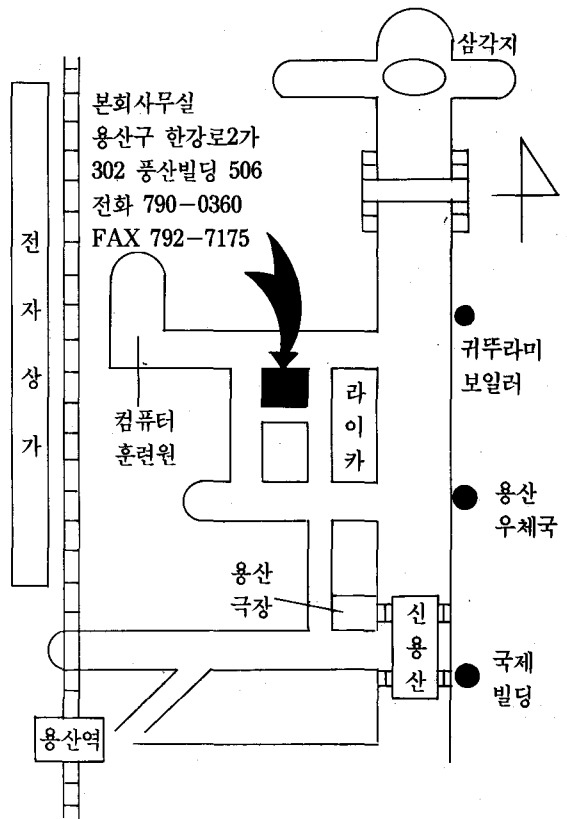
원고매수는 2백자 원고지 40매 내외로 오는 4월30일까지 축협중앙회 홍보실로 접수하면 된다.

한국축산기계공업협회 출범 17일 현판식 갖고 업무개시 시작

한국축산기계공업협회(회장 양창옥)는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302번지 풍산빌딩 506호에 사무실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이날 현판식을 가진 본회는 축산업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회원 상호간 이해증진과 권익보호, 건전한 기업윤리확립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전화:(02)790-0360
- 팩스:(02)792-7175
- 약도:



**알먹고 키지랑
닭먹고 힘지랑!**